

200자 안내

결혼에세이

박수선 지음

‘여성의 전화’ 상담간사를 맡기도 했던 저자가 국적불명이 된 우리들의 결혼식 문화와 부부생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 모두 5부로 구성. 결혼의 의미, 결혼준비 절차, 결혼생활 꾸리기, 결혼과 성, 결혼과 직장 등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 주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부록으로 개정된 가족법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민맥/A5신/208면/3800원

나는 지금 몇시에 와 있는가

변우진 지음

현재 미국 미네소타 법대에 재학중인 저자가 군대 제대 후 2년간 미국 법률회사의 홍콩 사무실과 홍콩대법원의 통역관을 하면서 체험한 에피소드들을 모았다. 동·서양이 공존하고 있는 홍콩에서 만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 또 외부에서 바라본 한국인의 삶과 의식 등에 대한 저자의 느낌과 생각이 담겨 있다. 젊은이 특유의 경쾌한 문체와 밝고 건전한 가치관이 돋보인다.

청림출판/A5신/202면/3500원

이 사랑이 타오르기까지

오혜령 지음

깊은 신앙심과 사랑으로 오랜 병마와 싸우면서 현재 무의탁 노인수용시설인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의 에세이집. ‘그대 가난해졌기에 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리라’라는 본문의 글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의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저자의 사랑관, 고통관, 은혜관, 평화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저자의 삶의 철학을 소박하고 정갈하게 보여준다.

문학세계사/A5신/294면/3800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우지끼 노부루 지음/최경희 옮김

18세때 철도차살미수로 두다리와 왼쪽 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두개를 잃었으나 현재 한 가정의 주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하라 요네코 여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목사인 다하라 아끼도씨와의 결혼 이후 절망에서 벗어나 새생명을 얻고 자신의 장애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온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요네코 여사의 감동적 이야기를 통해 삶의 승고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알돌기획/A5신/188면/3000원

당신의 땅도 도둑맞을 수 있다

양귀만 지음

16년간 부동산업에 종사, 현재 대한부동산학회의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사건 예화들을 모은 책. 속칭 ‘땅꾼’이라 불리는 부동산 사기꾼들의 행각과 그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소설문체로 구성하여 감각적 필치로 기술하고 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일 수 있으리 만치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사건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을지서적/A5신/300면/5000원

광고기획론

서범석 지음

모든 광고는 광고기획을 기준으로 제작, 집행, 분석, 관리되어진다. 이 책은 광고활동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전략인 광고기획의 개념에서부터 실제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광고기획의 각 단계들을 해설하고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광고기획의 개념, 광고기획과 광고대행사, 광고목표의 수립, 광고예산의 설정, 광고전략 모델, 광고효과 분석, 광고기획에 대한 실제적 접근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남/A5신/288면/6000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행복하다

크리슈나무르티 지음/김정우 옮김

‘온갖 활동을 벌이고 경험하는 두뇌가 과연 깨끗이 조용해질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활동인 명상에 대한 저자의 생각들을 모은 책. ‘산새 울음소리’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과 창조와 죽음’ ‘사랑, 오직 그 이유만으로 해본 일이 있는가’ ‘생각의 그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 등 5부로 나누어 저자의 경구와 시, 일기, 전기 등에 수록된 글들을 발췌하여 엮었다.

영언문화사/A5신/250면/3500원

숲에는 그대 향기

강신재 지음

「젊은 느티나무」, 「임진강의 민들레」 등으로 잘 알려진 중견 여류작가의 신작장편. 몰락한 집안의 아들로써 자존심이 강한 영길, 여리기만 해서 오히려 사랑스러운 루미, 새디스트적이며 광적인 집착을 사랑으로 여기는 태식 등 세사람이 벌이는 애정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세사람이 번갈아 가며 화자가 되는 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괴잉된 이념도 결도는 性묘사도 배제하여 신선감을 더하고 있다.

교양사/B6신/242면/2500원

강간당한 남자

마타 티카넨 지음/최병련 옮김

핀란드계 스웨덴인이며 저널리스트이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최신작.

남편과 헤어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도서관 사무원인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치욕적인 강간을 당하고 복수를 꿈꾼다는 줄거리. 섬세한 심리묘사와 예리한 시각으로 남성우위의 가치질서 속에서 왜곡된 성윤리와 그에 뿌리를 둔 폭력과 경쟁의 세계질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선문/A5신/246면/3000원

사랑은 사랑만이 사랑을 사랑하리

곽광택 지음

현재 문일중학교 교사이며 교원독서동호회 회장이기도 한 저자가 들려주는 사랑의 지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진실과 겸양, 신념을 통한 삶의 완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저자는 사랑의 표현은 말과 글이 아닌 ‘진실로 행함’에 있다고 본다. 또한 사랑을 위한 자신의 행위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삶은 기쁨이 된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다. 친구 또는 이성간의 사랑으로 번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참된 사랑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리/변형/112면/2500원

잠시 멈추어 선 이자리

김운덕 지음

1973년에 도미, 현재까지 그곳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저자의 수필, 일기, 시, 편지 등을 모은 책.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의미로 책을 펴냈다’는 것이 저자의 말. 이 책에는 17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저자가 체험한 교포사회의 실상과,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겪는 애로와 기쁨, 신앙, 우정 등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홍사단출판부/A5신/242면/3000원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

곽노순 지음

현재 목원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교인들과 사랑으로 어우러져 살았던 10년간의 목회활동에서 얻은 체험과 성서와 동양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명상과 잠언을 모은 책. 칼릴지브란적인 시적 감흥과 노장에서와 같은 사유의 깊이와 넓이, 성서의 잠언에서 만나는 심오한 지혜와 교훈이 번뜩이는

것이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의 특색이다.
다산글방/A5신/192면/3300원

에니어그램

M. 레벡카 외 지음/이정순 옮김

고대 이슬람의 신비가인 수피들이 영적 상담과 영성지도를 통해 파악한 인간의 9가지 유형을 에니어그램이라 한다. 이 책은 구전되어 오던 에니어그램을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재정리한 것으로 만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실제 지도한 저자의 체험이 반영되어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직관적 통찰력을 기초로 한 동양의 지혜를 통해 자신과 남을 바로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준다.

성서와 함께/A5신/160면/2500원

아들과 戀人(上·下)

D. H. 로렌스 지음/김재남 옮김

인간 본연의 성적인 욕구가 빚어내는 갈등과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파행 등을 주로 다루어 외설시비를 날기까지 했던 작가의 대표작. 정신적인 사랑의 관계에 빠져든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 틈에서 고통받는 아들의 연인이 엮어가는 삼각관계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속에 내재된 性의 실체를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탄광촌의 광부였던 아버지와 여교사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작가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혜진서관/A5신/338, 340면/각 3700원

고통이라는 걸림돌

요하네스 브란첸 지음/배영호 옮김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의 기초교의신학 교수인 저자가 1982년 사순절에 강론한 내용으로 원제는 ‘왜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가?’이다. 이 책은 인류역사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고난을 ‘하느님을 외면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학적 사항’으로 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고통을 직시할 수 있게 하며 난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가능성을 훌륭히 일깨워주고 있다.

성바오로/B6변형/104면/1500원

주부편지

한국기독교여성문인회 엮음

신앙을 함께 하는 주부작가들이 주부선교와 가정내 사랑의 회복을 목적으로 창간한 주부편지 모음집. 1989년 3월에 창간된 이래 매달 10만부씩 회원에게만 배포되던 것을 90년 5월, 15호까지의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책으로 펴낸 것이다. 집안 꾸리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부들이 겪는 각종 갈등과 고민들을 담은 편지와 그에 대한 지침을 담은 답신, 각종 사례와 예화들을 수록하고 있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김충원 지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에서부터 미지의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퀴즈를 통해 알아본다는 의도로 기획된 시리즈의 세번째권으로 조류와 곤충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KBS TV에서 방송삽화를 그리고 있는 저자의 재미있는 삽화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퀴즈를 풀어가면서 각종 새와 곤충들의 특징과 생태를 흥미롭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진선/A5신/224면/3000원

1985년

기요르기 달로스 지음/최광렬 옮김

조지 오웰의 「1984」의 후속편 형식을 빌어 쓴 정치소설. 빅 브라더가 죽은 후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투쟁과 갈등, 개혁운동의 진전, 노동자 혁명, 외세의 개입과 개혁운동의 패배 등 혼란한 정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살다간 세 주인공의 회상록과 당시의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한 역사학자를 화자로 한 이 소설은 1950년대의 동유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신평론/A5신/168면/3000원

계간지

현대시세계(1990년 겨울)

[기획평론] 최근 시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 분석

▲동물들의 이미지-위대함의 소청(김정란) ▲광물이미지를 통해서 본 한국시의 성격(이동순) ▲최승호의 '분노 이미지'를 중심으로(김혜순)

[신작시] 최하림/윤후명/정양/문정희/이성선/전원책

[시인연구] 황지우

▲시인과의 대담(주인석) ▲시인론(임우기)

▲황지우 신작시 연구자료

[27인의 재수록시]

[장석주의 가을] 내면에서 타오르는 몇 개의 불꽃들

[시집서평] 한만수/김경수

청하/A5신/236면/3500원

현대소설(1990년 겨울)

[소설] ▲돌아온 사람들(한승원) ▲아틀란티스(이승우) ▲옴팔(최시한)

[장편연재] 봄꽃 가을열매(서정인)

[한국의 작가 5] 한승원(김현)

[자전적 사소설] 머리 속의 도시(김원우)

[소설의 길을 찾아서 4] 조선희, 「퇴적층」, 그리고 잡스러운 생각들(고종석)

[무기명 칼럼] 하나의 민족과, 또 다른 하나의 문학

[한국소설사. 1] 김윤식·정호웅

[평론] 연작소설의 기법과 장르적 가능성(권영민)

[외국의 현대소설 5 미국편] ▲고갈과 소생의 문학(장경렬)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조이스 캐롤 오츠/박겨울)

[서평] ▲이문구의 「산너머 남촌」(김태현)

▲이청준의 「키작은 자유인」(윤지관)

[제2회 현대소설 신인상 심사발표] ▲누가/베르톨트 브레히트를 죽였는가(박혜근) ▲잠드는 호수(이중은)

현대소설사/A5신/394면/4000원

학회지

古書研究(제7호)

[논문] ▲韓雅振研究文獻志(하동호) ▲應旨農書로 엮은 梁翊濟農書의 研究(김영진) ▲新羅時代의 印刷出版問題(안춘근) 大覺國師文集考(윤형두) ▲四介松都治簿法の 帳簿組織에 관한 研究(권상수) ▲西洋簿記導入史를 研究하면서(박세록)

[수필] ▲나의 애장서(김영진) ▲라라의 회상(박도혁) ▲古書의 정의(박세록) ▲아들과 함께 하는 책방나들이(서용순) ▲책과 불혹의 나이(전언영)

[지상진사회] ▲西洋哲學導入史 자료의 紙上展示會(김중헌/남윤수 외) ▲解放一週年間 刊行圖書의 紙上展示會(윤병태/조원희 외) [고서교양강좌를 마치고]

[한실 이상보 교수 중국기행문물전 목록] 청림출판/A5신/186면/비매품



사진집

允美네집

全夢角 찍음



첫말이 태어나서부터 출가할 때까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지극한 父情을 엿보인 사진집이 나와 관심을 끈다. 全夢角교수(성균관대, 토목공학과 60)가 사진에 대한 열정

으로 시작한 큰딸 윤미(27)의 사진찍기는 눈도 못뜬 채 강보에 싸인 아가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로 태어난 동생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누나에서 동네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꼬마로, 엄마의 빗질에 다소곳한 소녀에서 어느새 키가 쑥쑥한 교복차림의 여학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무릎을 벤 성숙한 여인,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깨끗한 신부의 모습. 그 사이 사이로 엄마와 允美, 允豪, 允石 3남매의 얼굴들이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펼쳐보인다. 1971년 첫 개인전에서도 '允美네 집'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던 全교수는 부인李文江씨(51)의 회갑 때를 맞춰 연애시절부터 백발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아내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 「어떤 여자의 일생」도 준비중이다.

視角/A4/152면/10,000원

사전

우리말 맞춤법·표준어 사전

남영신 엮음



각 사전마다 다른 형태로 올림말이 오르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올림말의 형태를 바르게 확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일차자료로서 엮어진 사전이다. 어쩌면 사전이거보다 맞춤법

이나 표준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로서 더욱 유용한 책이다.

가령, 동사나 형용사에는 그 기본형을 나타내는 '-다'를 쓰지 않고 어근만 올림으로써 그 낱말이 동사나 형용사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했고, 토박이말과 한자말, 외래어가 합성된 경우엔 '보따리(褌-)'처럼 표기하여 같음했다. 낱말의 철자를 확인해야 할 때나 표준말 여부를 가려야 할 때 좋은 참조가 된다. 그리고 아직 사전에 오르지 못한 토박이말을 새롭게 올릴 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소, 쇠'의 적용문제나 '수, 솟' 또는 '이, 히'의 적용문제를 해설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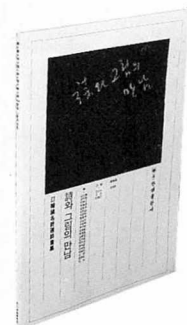
부록에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을 수록하여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엮었다.

한강문화사/A5신/760면/18,000원

시화집

詩와 그림의 만남

김소월 외 지음



한국의 명시들을 그림과 함께 엮은 시화집. 김소월의 「진달래 꽃」 조지훈의 「승무」 이육사의 「광야」를 비롯해서 김수영의 「풀」 정지용의 「향수」 그리고 고은의 「화살」에 이르

기까지 모두 24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각 시마다 부드러운 느낌의 파스텔화를 함께 실어 '화집'의 분위기가 돋보이는데, 그것이 때로는 명시감상의 세계를 축소시키기도 한다. 파스텔화가인 강신석(1915~1979년)과 민중근(47)의 예술세계는 한편으로 명시의 이미지와 어울려 독특한 느낌을 전달해준다. 시와 무관하게 독립된 그림으로도 감상될 수 있다.

또 수록된 작가를 연필드로잉으로 그린 얼굴도 이 책을 들춰보는 색다른 맛이다. 현역 교사들이 직접 쓴 작가메모는 작품이해에 도움을 주며, 수록된 24편의 시를 모두 영문번역한 것도 이 책의 장점으로 꼽힌다. 한샘출판사/A4변형/98면/12,000원